

원유, 무역적자 핵심으로 부상

수입량 정체에 수입액 급증 ... 1-7월 383억8000만달러 달해

2010년 원유 수입량은 2009년 같은 기간과 엇비슷했으나 국제유가 강세로 수입액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10년 1-7월 원유 수입액은 383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3% 증가했으나 수입량은 4억9040만배럴로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평균 원유 수입가격은 배럴당 78.26달러로 26.10달러나 치솟았는데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가 진정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상승한 이후 2010년 들어서도 7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유 수입액의 증가 추세는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2010년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에서 두바이(Dubai)유 현물시세는 하반기에 배럴당 평균 77.07달러, 2011년 상반기 82.22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고 유가 강세까지 겹쳐 원유 수입액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을 유지한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고유가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산업 전반에 부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6>